



원청교섭

비긴즈

2026-9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10.2.(금)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개최 4분기 투쟁계획 결정

금속노조가 14기 4차 원청교섭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9월 30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고 4분기 투쟁 계획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 참가 노동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원청교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위력적인 투쟁을 위해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노조 차원의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대표자회의를 12월 9일 열기로 하고 올해 원청교섭 투쟁을 2027년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원청교섭 투쟁 평가를 위한 현장 토론문을 만들기로 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원청교섭 상견례 사측은 불참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0월 2일 현대제철과의 원청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사측은 끝내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9월 16일 확정 공고를 통해 금속노조를 원청교섭 대상 노조로 확정함에 따라, 현대제철 원청은 교섭장에 나올 의무가 있다. 충남지부 원청교섭 투쟁본부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든, 안 나오든 노조는 노조 계획대로 간다”며 쟁의권 확보를 예고했다. 본부는 “원청은 불필요한 마찰 발생시키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삼호 조정 중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전남지노위가 9월 30일 금속노조와 HD현대삼호 간의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조정 과정에서 HD현대삼호 원청은 지노위 권고안도 무시한 채, 업체명과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교섭에 나서지 않겠다며 추태를 벌이기도 했다. 조정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만큼 기필코 원청교섭 쟁취하고 말겠다”며 결의를 다졌다.